

# 2위들의 반격 ... 힐러리·트럼프 ‘흔들’

### 美 대선 레이스 위스콘신주 경선서 샌더스·크루즈 승리

### 힐러리 대세론 주춤 ... 반트럼프 세력집 트럼프 불안

“위스콘신에서 양당 모두 ‘리셋’(reset·재설정)됐다”(미국 워싱턴포스트)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북동부 위스콘신주 경선이 올해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민주·공화 양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세를 굳혀가는 흐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기에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양당의 대선 경선판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경선으로 표면화된 ‘반전의 흐름’이 이달 중·하순으로 예정된 동부지역 경선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에 따라 경선의 판도가 뒤바뀌는 ‘게임 체인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반트럼프 세력집에 ‘막말 자책골’... “유권자 55%, 트럼프는 불안”=이번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트럼프가 2위인 테드 크루즈에게 대패한 것이다. 크루즈는 49.3%(개표 73% 기준)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33.9%를 얻은 트럼프를 큰 격차로 눌렀다.

트럼프의 이번 패배는 첫 경선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크루즈에 진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트럼프가 가장 ‘빠아른’ 대목은 지금까지 경선 흐름으로 볼 때 위스콘신이 좀처럼 지지 어려운 주(州)였다는 점이다. 백인이 무려 88%에 달하는데다 공화당 유권자의 57%(2012년 공화당 프라이머리 기준)가 대학졸업장이 없고 지역산업 구조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열풍’을 잉태했던 계층적·지역적 조건을 골고

루 갖춘 셈이다.

그런 위스콘신이 트럼프를 외면한 것은 반(反)트럼프를 기치로 내건 공화당 주류의 세력집과 트럼프 스스로의 ‘실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샌더스 ‘경제 메시지’ 업고 돌풍 재점화...힐러리 대세론 ‘주춤’=민주당 진영에서는 샌더스가 또다시 대세론의 주인공인 클린턴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개표작업이 75% 진행된 결과 샌더스는 과반을 넘긴 56.1%를 기록해 43.6%를 얻은 클린

턴을 제압했다.

이로써 샌더스는 아이다호·유타·알래스카·하와이·워싱턴 주에 이어 위스콘신까지 최근 치러진 6개 주 경선을 연속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슈퍼 화요일’과 ‘미니 슈퍼화요일’을 거치며 사그라지는 듯하던 ‘샌더스 열풍’이 이번 경선을 거치며 다시 점화된 분위기다.

샌더스가 승리한 데에는 ‘경제 메시지’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스트 벨트(쇠락한 중북부의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위스콘신에서 경제문제를 최우선시하고 반 무역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는 예기다.

클린턴이 이번 경선 이전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712명(슈퍼대의원 469명 포함)으로 매직넘버(2383명)에 도달하기까지 671명이 필요하다. 1011명(슈퍼대의원 31명)을 확보한 샌더스는 클린턴의 두배가 넘는 1372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샌더스로서는 남은 경선에서 56%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 버거운 과제가 주어질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대의원 291명이 걸린 뉴욕주 경선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지만 샌더스가 ‘힐러리의 아성’인 이곳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날개꺾인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이크 소방서에 마련된 투표소에 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를 마친 뒤 승용차를 이용해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UAE 대통령·파키스탄 총리·아제르바이잔 대통령

## 세계 정상들 조세 회피처 통해 英 부동산 소유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들이 탈세 ‘온상’으로 지목된 파나마 로법을 통해 역외 기업을 설립해 영국에서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몰래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상들 가운데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등이 포함됐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통해 공개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와 관련된 역외기업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각국 전현직 정상들이 역외탈세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 회피처에 회사를 세우고 런던 부유층 거주지나 중심가 상업지구 등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세이크 칼리파 빈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런던 중심가에 10여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BHS 백화점 건물을 비롯한 런던 중심부 상업지구의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이 그의 소유로 모두 합치면 12억파운드(2조원)어치에 달했다.

최근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말 명의로 영국 내 자산 관리를 위한 회사 ‘차일드 앤드 차일드’(Child & Child)를 설립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의 딸들은 런던 북부의 명소 햄스테드 히스 근처에 1700만파운드(약 278억원)짜리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하이파크 인근의 럭셔리 펜트 하우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역외기업 두 곳을 설립했다.

그는 2008년 런던 캔싱턴 지역에 275만 파운드짜리 집을 구입했고, 그 일년 뒤에

는 패딩턴역 인근 상가를 75만파운드에 사들였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출가한 딸 ‘미리암 사프다르’ 명의로 설립한 역외기업 두 곳을 통해 하이파크에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샤리프 총리의 네 자녀 가운데 두 아들과 딸 한 명의 이름이 거명돼 있다. 총리의 자녀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샤리프 총리의 둘째 아들 후사인은 “영국 및 다른 나라의 법에 따른 일로 아무 잘못이 없으며 불필요한 세금을 역외기업을 통해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항변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 제재 대상 北선박 27척 항구 입항 못해

### 北 영해·공해만 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해 영해 또는 공해만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와 지도를 분석한 결과 5일 현재 제재 대상 선박 가운데 외국 항구에 머무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난달 3일 현재 해외 항구나 공해상에서 24시간 이내 위치가 파악됐던 선박은 모두 15척이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는 선박수가 7척으로 줄었다.

이후 지난달 말에는 2~3척이 포착됐

으며, 이들 선박은 중국과 홍콩, 러시아 알바니아에 짧은 체류 후, 길게는 2주 남짓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에 대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 한달째로 접어들면서 이들 선박마저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채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밖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위치가 드러난 제재 대상 선박 퍼스 트래킹과 그린라이트호는 5일 현재 한반도 남쪽을 돌아 북한 동해 원산항에서 서해 남포항으로 또는 남포항에서 원산항으로 운항 중이다.

나머지 세보호와 미림호, 회령호 등은 김책항 등 북한 항구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이후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역시 북한 영해 내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반기문총장, 미얀마 첫 문민 대통령과 통화 ... 지원 약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반세기 만에 출범한 미얀마 문민정부의 수장 틸 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관영 해 유엔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미얀마를 방문했다. 2009년에는 군 사정권의 불허로 수치를 면담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는 방문 때는 수처와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얀마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틸 초 대통령도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반 총장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미얀마를 방문했다. 2009년에는 군 사정권의 불허로 수치를 면담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는 방문 때는 수처와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 FIFA 인판티노 회장, UEFA 간부 당시 부정 드러나

### TV 중계권 계약 뇌물

### BBC 방송 등 보도

지난 2월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당선된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축구연맹(UEFA) 간부였을 당시 서명한 TV 중계권 계약에 ‘수상한’ 대목이 나타나 의혹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참여한 영국 BBC 방송 등은 UEFA로부터 TV 중계권을 낙찰받은 기업이 중계권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중남미 축구협회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역외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태평양 섬나라 니우에에 등록된 ‘크로스 트레이딩’이라는 기업은 2006~2007년, 2008~2009년 두 시즌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계권을 11만1000달러(약 1억2000만원)에

낙찰받은 다음 이를 3배 가까운 31만 1170달러에 에콰도르 방송사인 ‘텔레아마조나스’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스 트레이딩은 또 UEFA 슈퍼 컵 중계권을 2만8000달러에 사들여 텔레아마조나스에 5배 가까운 12만6200달러를 받고 넘겼다.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 마케팅 임원들이 자 부자지간인 우고 진키스, 마리아노 진키스의 소유로 이들은 수년간 남미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 부자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크로스 트레이딩과 UEFA가 맺은 중계권 계약서는 현재 FIFA 회장이자 당시 UEFA 법률담당 국장인 인판티노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판티노 회장은 “개인적으로 크로스 트레이딩은 물론 진키스 부자와 접촉한 일이 없으며, 보도에도 나왔듯이 UEFA와 나 자신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 근린상가

# 오천경매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 투자/교육 등등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OP 2001호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